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17

“우리도 함께 뛴다”

‘호남 마라톤의 대명사’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의 46번째 징주가 17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의 마라톤 대회·기관·단체·시민들이 3·1절의 정신을 계승하고 건강을 다지기 위해 대회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단체팀을 소개한다.

아들·아내와 봄바람 맞으며 질주 회원 친목 쌓고 가족 건강 지키고

■ 어등산마라톤클럽

“순수 아마추어들의 모임이지만 실력만은 프로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겨우내 연습했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등산마라톤클럽(회장 최승호) 회원 17명이 3·1절 마라톤 대회를 통해 올해 첫 마라톤 대회 출발선에 선다.

2004년 결성 40~50대 주축

지난 2004년 순수 아마추어들이 모여 활동을 시작한 어등산마라톤클럽은 3·1절 마

라톤 대회와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지난 2005년 3·1절 마라톤 대회 첫 참가를 시작으로 전국 유수의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해마다 새해를 시작하는 공식대회로 3·1절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40~50대가 주축을 이루지만 7년여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회원들이 수많은 대회에서 입상하며 어느 마라톤 동호인들 못지 않은 기량을 자랑하고 있다. 매주 주말이면 어등산 주변과 철단교통공원에서 장성 진원면, 담양 한재골로 이어지는 30km 구간을 달리며 훈련에 매진한 결과이다.

어등산마라톤클럽을 이끌고 있는 최승호(45) 회장은 “얼굴을 스쳐가는 바람, 함

께 뛰는 사람들과의 대화 그리고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 이것들이 마라톤의 매력이다”며 “최근 구제역으로 인해 지역 마라톤 대회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이번 대회를 통해 회원들의 실력을 테스트하며 오는 3월 동아국제마라톤 대회를 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철인 3종 동호인 랭킹 1위 참가

철인 3종경기 전국 동호인 랭킹 1위를 자랑하는 신영란(여·45)씨도 이번 대회에 참가한다. 신씨는 “3·1절 마라톤 대회 참가로 마라톤과 인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매달



어등산마라톤클럽 회원들이 3·1절 마라톤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첫 마라톤 대회 출발선에 선다.

(어등산마라톤클럽 제공)

1~2차례의 마라톤 대회와 매년 6~7회의 철인 3종경기에 출전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에는 아들과 함께 뛰면서 이쁜 봄을 느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국대회 풀코스 50회 완주와 제주도 4연풀(4일 동안 매일 풀코스를 뛰는 마라

톤)에 빛나는 정석호(57)씨도 아내와 함께 이번 대회에 출사표를 내밀었다.

정씨는 “늦은 나이에 마라톤을 시작했지만, 열정만큼은 누구보다도 앞선다”며 “이번 대회 입상을 목표로 결승점까지 최선을 다해 뛸 계획이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의 꿈의 기록인 서브3(풀코스를 3시간 이내에 완주) 기록을 10회 달성한 주성남(42)씨와 전국 대회 풀코스 50회를 달성한 이충원(40)씨도 이번 대회 우승을 목표로 출발선에 선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박지성, 절친 테베즈와 맞대결

오늘밤 맨시티전 출격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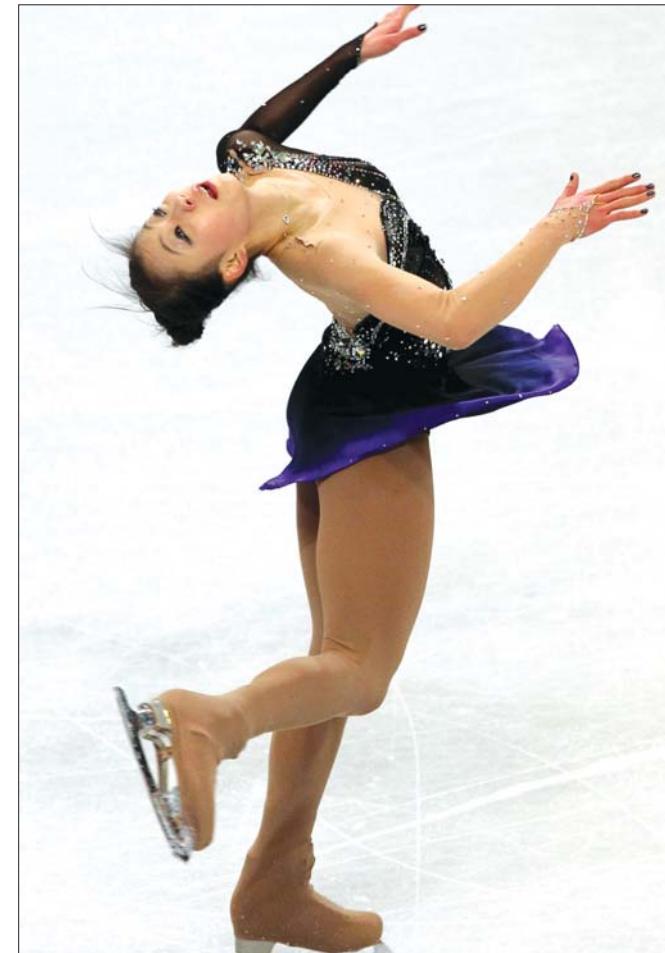
태극마크를 반납한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47일 만에 ‘맨유’ 유니폼을 입고 맨체스터 더비를 통해 정규리그 7호골 사냥에 도전한다.

정규리그 선두를 달리는 맨유는 12일 오후 9시45분(이하 한국시간)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지역 리이벌’인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 2010-2011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 27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팬들의 관심은 2011 아시안컵 마지막으로 대표팀 은퇴를 선언하고 소속팀에 전념하기로 한 박지성의 출전 여부와 함께 정규리그 7호골 달성을 쏟고 있다.

무릎 통증으로 아시안컵 3·4위전에 결장했던 박지성은 이후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고, 지난 6일 소속팀에 복귀해 시차 적응도 마친 만큼 선발 출전이 유력하다.

맨유는 홈페이지를 통해 “아시안컵 차출



<http://kjmarathon.co.kr>



피겨 스타 곽민정

동계 체전 금메달

피겨스케이팅 스타 곽민정(17·수리고·사진)이 제92회 동계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했다.

곽민정은 11일 강릉실내빙상장에서 벌어진 대회 여자 고등부 A조 프리스케이팅에서 종합 122.31점을 기록해 윤예지(108.18점·과천고)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곽민정은 이날 프리스케이팅에서 77.48점,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44.83점을 얻었다.

여자 고등부에서 가장 난도가 높은 연기를 펼치는 선수로 구성된 A조에는 곽민정과 윤예지만 출전했다.

곽민정은 지난 5일 카자흐스탄 동계아시안 게임에서 147.95점을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곽민정은 한국 피겨스케이팅 싱글 종목 사상 첫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가 되면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연아(21·고려대)를 이을 차세대 스타로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연합뉴스

한화, 이범호 보상선수 오늘 지명

프로야구팀 한화가 최근 KIA와 계약한 이범호의 보상선수를 마감 시한인 12일 지명하기로 했다.

윤종화 한화 단장은 “어떤 선수를 데려올지 감독과 상의하고 있다”며 “오늘은 어렵고 내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11일 말했다.

한화는 현금보다는 선수로 보상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보상선수로 투수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KIA는 한화에서 즉시전략으로 기용해 악점을 메울 수 있는 야수를 모두 보호선수로 지정했기 때문에 투수 쪽으로 선택의 폭이 자연스럽게 좁혀졌다.

한화는 내야진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

특히 이범호가 2009년까지 맡았던 3루는 시즌 내내 공백상태로 남아 부진한 성적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됐다.

한화가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로 몇몇 짧은 투수들이 거론되지만 보상선수들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소속 구단의 보호선수 18명에 들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선수 자존심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점을 고려해 명단을 밝히지 않는 게 관례다.

한화는 지난 시즌에 최하위로 떨어지자 시즌을 앞두고 ‘젊고 강한 팀’을 기치로 내걸고 재건에 도전한다.

한화는 보상선수 영입이 리빌딩 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고 밝혀 어떤 선수를 지명해 어떻게 기용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제46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2011. 3. 1 | 화 | 08:30~16:00
풀코스 출발 09:00

| 장 소 | 광주월드컵경기장 - 남평교

| 대회종목 | 5km, 하프코스, 풀코스

| 접수마감 | 2011년 2월 14일 (월)

■ 참가비

- 풀·하프 : 20,000원
- 5km : 10,000원
- 단체참가 특전 : 자원금 지급
 - 하프코스 이상 50인 이상 참가단체 : 20만원
 - 하프코스 이상 30인 이상 참가단체 : 10만원
- 참가비 입금계좌 (예금주 광주광역시)
- 광주은행 001-107-437903 · 국민은행 551-01-1468-999 · 농협 617-17-002371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kjmarathon.c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최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일보
| 주 관 | 광주육상경기연맹 · 전남육상경기연맹
| 후 원 | 광주지방보훈청 · 광주지방경찰청 ·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 광주남부경찰서 · 나주경찰서
| 참가문의 | 062-220-0541